

살인, 강도, 강간의 지역 간 발생률 비교와 변화

민수홍 (경기대학교)

- 살인율은 2005-2013년 기간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살인율이 높은 도시가 낮은 도시보다 더 안정적으로 순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 강도율은 2005-2013년 기간에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강도율은 지역 간 차이가 크고 순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강간율은 2005-2013년 기간에 꾸준히 증가하였다. 강간율은 살인율과 강도율에 비해 지역 간 차이가 더 크고 순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여성을 표적으로 한 흉악한 살인사건이 수원시 팔달구에서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경악했던 경험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지역과 범죄 발생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쇼 (Clifford R. Shaw)와 맥케이(Henry D. McKay)는 1920-1930년대 시카고 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비행이 지역적

으로 상당히 유형화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에서 비행 발생률이 높았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해가는 전이지역에서 비행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지역에 따른 비행의 차등적 발생유형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국내 공식 범죄통계인 「범죄분석」 자료를 사용하여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심각한 유형의 범죄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간 범죄 발생률 차이와 전국 52개 주요 도시(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44개 시) 간 범죄 발생률 차이를 분석하였다.¹⁾ 또한 지역 간 범죄 발생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의 기간을 3개년씩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기타범죄의 지역별 발생률 (2015년)

	절도	폭행	사기	특별경제범죄	교통범죄
서울	55280	36904	53879	22075	74958
부산	20136	8852	20533	13868	35841
대구	12759	6607	11507	3421	39725
인천	10679	9774	13141	5751	31163
광주	8438	5386	7669	2535	23412
대전	9495	4054	7250	1635	13556
울산	5449	4213	5606	1289	16600
세종	638	139	487	187	1056
제주	3309	1919	2734	982	10857

강력범죄의 추세

흉악범죄'를 범죄의 종류별로 즉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10만명당 발생건수를 보자(〈표 X I-12〉). 먼저 살인을 발생건수로 보면 1996년에 연간 10만명 당 690건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1,000건을 약간 넘어서고 있어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다고 할 수 있으나, 2000년경부터는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인 발생률 추이를 보더라도 10만명당 1~2명에서 비교적 안정적 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급격한 증가 나 감소는 보이지 않는다. 강도는 1996년에 3,586건에서 2006년에 4,684건 으로 10년 사이에 1,000여 건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서 서 2006년에는 10만명당 9.6건으로 10년 전인 1997 년의 수준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살인과 강도의 발생건수와 발생률이 10여 년 동안 안정적이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강간(성폭력 포함)과 방화의 발생건수와 발생률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강간범죄는'흉악범죄'중 발생건수와 발생률에서 단연 선두에 있는 범죄이다. 발생건수는 1996년에 7,100여 건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13,000건이 넘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증가 를 보여준 것이다. 발생률도 1996년에는 10만명당 약 16건 정도이던 것이 2006년에는 10만명당 약 28건으 로 두 배 가까운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 생건수와 구성비율의 증가를 액면 그대로 성범죄 발 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성범죄 발생의 증가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로 신고율의 증가, 아동성학 대와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관용 경향 등이 더 많은 범 죄를'찾아내도록'한 것일 수도 있다. 끝으로 방화범죄도 강간(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발생건수와 발생률에서 모두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 다. 1996년에 721건이었던 방화범죄는 1998년부터는 1,000건을 넘어섰으며 2000년대에 와서 등락을 보 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90년대 후반과 비교하여 볼 때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 다. 10만명당 발생률도 급격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력범죄의 지역별 발생률 (2015년)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	방화
서울	67	96	274	969	118	4282	94	315
부산	20	41	161	383	24	991	37	117
대구	13	23	60	216	21	645	20	86
인천	17	34	103	304	35	924	31	94
광주	11	7	44	216	17	495	22	48
대전	8	16	64	181	14	362	12	41
울산	12	11	29	132	10	293	9	36
세종	2	1	0	3	1	34	0	5
고양	8	9	14	73	9	256	7	40
과천	2	0	0	0	0	20	0	1

주요 국가 강간범죄율 비교

주요 국가 강간범죄율 비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강간이 '흉악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강간범죄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인가? 최근의 추세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신자료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국가의 강간범죄율 자료는 우리나라의 강간범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X I -14]). 2003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경우는 10만명당 93건, 독일은 40건, 미국은 32 건 등으로 한국의 22건보다 훨씬 발생률이 높다. 반대로 일본의 강간범죄율은 1993년에 10만명당 4건에서 2003년에 9건으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항간에 우리나라의 강간범죄율이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라는 소문이 있기도 하였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흉악범죄'는 그 피해정도나 일반인에게 주는 공포의 면에서 삶의 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특히 최근에 강간(성폭력)과 방화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이은 아동성폭력과 사회적 불만표출로써의 방화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법 제정과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사건과 방화사건의 원인을 개인적인 수준에서만 찾아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폭력을 부추기거나 방관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증가시키는 계층간의 갈등이나 빈 부격차 등을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